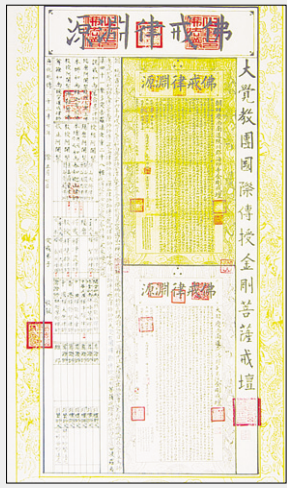


사천 불자 10선행 보살계 수계

대각교단, 용성·봉암 스님 유지 봉행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菩薩)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많은 사찰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3·1운동 33인 중 한 분인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대각교단(총재 석가산)은 6월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대연회장에서 '국제전수 금강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수계법회의 특색은 중국, 대만, 스리랑카 등지의 고승들이 아사리(阿闍梨;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지도해 그 모범이 되는 스님)로 참석한다. 수계법회 봉행위원회(위원장 능인, 대한불교진흥원 조계종 총무원장)에 따르면, 오명 세계승가회 명예회장과 홍종불교연합회장 각광 장로가 명예설계사, 前 해인사 주지 만응 스님과 도성 스님이 설계사, 대만불교회 회장 정량 장로가 득도아사리를 맡는다.

이번 수계자들에게는 용성 스님이 율맥에 따라 '불계율원원첩(佛戒律淵源帖·사진)'을 수여한다. 이 계첩은 용성 스님이 1938년 부처님오신날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제자 봉암 대희(峯庵 大喜) 스님에게 전필로 전한 '불계율원원'을 재현한 것이다. 가로 72cm 세로 102cm 크기인 이 계첩에는 한국 불교의 율맥과 '보살 10종과 48계, 비구 250계를 전하니 받들어 지녀 끊이지 않게 하라'는 담부의 말이 쓰여 있다.

봉암대희 스님은 이번 법회

의 전제사인 가산 스님의 은사로, 1928년 광주고보 4년 재학 중 항일동맹휴업을 이끌다 제적됐다. 이후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 용성 스님의 법을 이었다. 정부는 2006년 봉암대희 스님의 독립정신을 기려 대통령 표창장을 추서했다. 가산 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는 3·1운동 민족대표인 용성 스님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이끌렸던 봉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율맥을 잇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계는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 되고, 부처님은 지혜의 등불이니 기쁜 마음으로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번 법회에 대한 불교석가종, 임제선종, 운문종 등 14개 종단의 신도 4000여 명이 동참해 수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30일까지 수계신청을 받는다.(대구 접수처 053-325-5288, 325-0400, 부산 051-632-0108) 정성연 기자

예토를 정토로 금강사에 주목

대중결사 아카데미... 창건 10년, 거제 종교 판도 바꾸다

거제는 경남 지역에서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불교세는 거창군 다음으로 약하다. 2005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거제의 불교 인구는 6만1831명, 전체 인구의 31.97%로 가장 낮은 거창군(31.24%)과는 근소한 차이이다.

이런 가운데 창건 10여 년 만에 거제시 종교 지도를 바꾼 만한 변화를 이룬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끈다.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 스님이 2001년 2월 창건한 금강사는 거제 불자들이 수준 높은 불교 교양교육을 받기 위해 교양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4월 5일 거제 금강사에서 '거제 금강사의 포교 활동과 경남 지역 불교 현황'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지 성원 스님은 주제발제 '거제 금강사의 포교 경험과 성과'에서 거제의 불교세가 약했던 이유를 무속과 가까운 불교에 있다고 파악했다.

"2001년 처음 거제도에 왔을 때 지역불자의 80%가 불교를 무속과 결합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 다. 불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불교교양대학을 시작했고 이것이 주효했습니다."

스님은 불교 불모지인 거제에서 '교육포교'를 선언하고 2007년 불교교양대학 설립했다. 불교교양대학 강좌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를 사용해 기초교리 강좌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알기 쉬운



4월 5일 거제 금강사에서 열린 대중결사 아카데미에서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이 발표하고 있다.

불교 강좌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대중은 종교와 종단을 초월해 관심을 보였다. 3월 16일 개강한 제6기 생가사 불교교양대학을 다녀간 학생만도 500여 명에 이른다.

성원 스님은 불교교양대학의 기초교리반 수강을 마친 불자들이 경전수행반으로 진학해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교학 공부를 이어가도록 했다. 스님은 교학과 신행의 균형을 위해 일요가족법회를 월 1회 봉행, 은가족의 사찰 행사 참여로 소속감을 높이도록 했다.

성원 스님은 "교육중심 포교의 결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신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도들과 함께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기초수급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원어인 영어, 문화체험,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사찰과 신도가 상생하는 교화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거제 수월초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거제금강유치원 등에서 다도

·만다라명상·바른먹거리 운동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부모의 불교 관심도도 높였다. 사회 복지에도 힘썼다. 금강사는 창건 이래 지금까지 지역연계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다문화가정교실,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원 스님이 10여 년간 증명해 보인 불교교양대학 운영을 통해 확보된 젊은 신도들을 활용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의 포교 모델에 공감했다. 성원 스님은 "불자들이 '20~30년 동안 알아오던 불교보다 불교교양대학에서의 가르침과 실천에 더욱 뜻있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꼈다"며 "거제를 불교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금강사는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100자 뉴스

조계종복지재단 다문화가족 후원금 전달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8일 종로 전법회관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다문화가족 결연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다문화가족 30명이 참석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20가 구(80여 명)에 각 12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번 20가 구 결연후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0가 구로 지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평위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 교육

사이버 공간의 정법 지킴이 종교평화 블로거를 양성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손안식, 이하 중평위)는 4월 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인 미디어 시대 종교평화를 지키는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교육'을 5월 8일-7월 16일 12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교육은 종교차별 근절과 종교평화 수호를 위한 불교계 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글쓰기 △사진 편집 및 동영상 제작 △블로그 관리 방법 △이웃종교의 이해 △종교와 인권의 역사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의 변화 등이 강의된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메일(kirf@kirf.or.kr) 또는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참가비는 10만원이나 성실히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전액 환급된다. (02)2011-1928

진각종 포항 이송정 등 사성지 성역화 사업

진각종이 종단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성지 성역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경)은 4월 2일 회당 진각종 최초설법지인 포항 이송정에서 초전법륜지 기념정 현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현공불사에는 진각종 도훈 총인을 비롯해 성초 종의회 의장, 통리원장 혜경 정사, 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도훈 총인은 현공불사에서 법어로 "이 곳은 심인법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설법을 하였던 초발심의 땅"이라며 "진인행자들은 회당종조의 뜻을 이어받아 심인정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응명정진하라"고 말했다. 통리원장 혜경 정사는 "오늘은 회당종조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 서원을 세우는 날"이라며 "참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담는다면 모두가 삼라만상을 담는 넓은 심인의 그릇이 되자"고 말했다.

표충사 호국대성 사명성사 춘계향사 봉행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은 4월 17일 표충사당에서 호국대성 사명성사 춘계향사를 봉행한다. 올해로 제533회를 맞는 사명대사 향사는 불교와 유교의례가 공존하는 추모다례의식으로 밀양 민관이 270년 동안 함께 개최해 온 전통문화유산이다.

1부 추도식과 2부 불교·유교 향사, 3부 400주기 기념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영남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주요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불교계의 구국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호국선양 및 독도지킴이 100만인 동참 서명운동도 선포된다.

주지 재경 스님은 "불살생계의 백척간두에서 나라의 명운과 더 많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위해 한걸음 내딛는 스님들의 용기는 이 시대의 표상"이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현실 앞에 사명 대사 400주기를 맞아 우리는 그 업적과 정신을 잇기 위한 학습 구축과 다양한 문화·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종교지도자도 4대강 '반대'

충북 종교인 사랑방, 17일 금강 순례

충북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의 4대강 개발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충북 종교인 사랑방(방주 광동철 신부)은 4월 6일 옥천 대성사에서 다섯 번째 모임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을 비롯해, 방주 광동철 신부, 이근태 목사(보은 학림

교회), 배영도 목사(보은 관기교회) 등 참가자들은 충북 4대강 시민감시단과 함께 4대강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 종교지도자들은 17일 금강발원지인 뜰봉샘과 금강유역의 보 설치 공사현장을 순례할 예정이다.

혜철 총정지사장

용성 스님 다례제 "대각사상 선양"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4월 8일 용성조사유훈실현추원회 지도법사단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성 스님 70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주지 법륜 스님은 다례제에서 "용성 조사의 대각사상으로 빛나는 삶을 갖자"고 강조했다.

죽림정사는 이날 용성 스님의 포교 원력을 잇기 위해 조실 도선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저작 <변화연기생활> 100만 권을 발간, 유포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니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어래보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사경문, 무상경, 의상조사법상경,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पाल신주경, 보왕사메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수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제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